

2020년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히13:8, 롬1:16-17)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으신 이유

| 사도신경

| 찬 송 309장

| 기 도

| 성경본문 요한복음 17: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삶 나누기

평소 늘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거나
누리던 것을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나누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희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교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분간 허용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으신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이는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모여서 예배행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흠어지게 하시거나 흠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흠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 자기 백성 중 많은 사람을 지중해 전체로 흠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 후 예루살렘 교인들을 흠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 전체가 온세계로 흠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흠으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소가 있었던 벰엘/길갈/브엘세바에 가지 말라(암5:5)고 하셨습니다. 그 곳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흠으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고 있을 것을 보시고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만 모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이들이 흠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모여있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들을 흠으셨습니다. “모이는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여 예배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흠어지게 하시거나 흠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흩어진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땅, 사마리아, 그리고 헬라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동안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 9:41). 바리새인들의 치명적 문제는 자신들이 보고 있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거짓된 만족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맹인이 되었더라면 볼 것인데, 본다고 하니...그 본다는 만족감이 너희를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든다!! / 만족하면 안됩니다! 영적인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성장 좀 안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성장을 멈춘 순간 그는 메말라 버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시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는거예요.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된다(마5: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우리 심령에 거짓 부유함으로 배가 불러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 버린 데서 하나님 만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흩어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열기에 묻어 가지도 못하게 하시며 교회에 왔으니 나는 경건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고독한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의 코로나19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골방에서 일대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한국교회에 허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청년이 될 무렵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22:16~18)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만남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독한 가운데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성전된 내 몸 안에 지성소를 지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분이 우리를 잠시 흠으신 이유입니다.

말씀 나눔

1.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자기 백성을 성전에서 흠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 우리 자신이 성전에 모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한 언행을 하며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 그 외에 이번 달 공과가 주는 은혜, 도전, 격려, 혹은 위로가 있다면 나눠보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